보 도 해 명

금융위원회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5.7.(목)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	담 당 자	허 성 사무관 (02-2100-2655)

제 목 : '증권사별 ELS 발행액 총량제'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기사(5.8일자 매일경제)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□ **매일경제**는 5.8일자「**증권사 ELS발행 사상 첫 총량규제**」제하 기사에서,

○ "금융위는 ELS시장 리스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'**증권사별 발행액 총량제**'를 추진하기로 했다." 고 보도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위원회는 **ELS시장의 건전화**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, **구체적인 내용**에 대해서는 **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.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